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백 고 은* · 이 지 예**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영향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공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과 전공, 출신 고등학교 집단 간 주요변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1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교육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전공만족도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 진로준비행동	4. 음악전공 대학생 진로관련 연구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2. 각 변인의 집단 간 특징 분석	
3. 변인 간 영향 관계 분석	4. 하위요인 간 영향 관계 분석	
V. 결론 및 논의		

* 서울대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수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음악학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향(劉向)『열녀전(列女傳)』에는 ‘맹모삼천지교(母三遷之教)’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는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 환경을 위해 세 번을 이사했다는 의미로 요즘 시대에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도 흔치않게 볼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가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학군 주위의 집값은 솟구친다. 2016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69.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취업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취업준비생’의 약자인 ‘취준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0대의 생활의 대부분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대부분을 할애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해도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다. 2015년에 졸업한 국내 음악대학 졸업생은 총 6,245명으로 이들 중 프리랜서 및 창업을 제외하고 18%인 1,152명만 취업하였다고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대부분의 음악대학 대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어린 나이에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고, 예술 중·고등학교를 거쳐 음악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음악대학 졸업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극소수만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 김계원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예체능계 학생들은 전공분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족한 일자리, 전공 외 필요한 능력 부족, 현장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진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 전반동안 일이나 직업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즉 입학, 졸업, 취업, 직업 전환 등의 사건을 말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대학생이 되어서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정영해 외, 2011). 음악대학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까지의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 이후 음악영재성 발현 등 교육 이후의 연주와 공연 관리 등이 중요하므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태진미, 2009).

그리고 진로교육 외에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위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진로와 관련한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이승민, 장근주 2014). 스스로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어떠한 진로로 이어나가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는 준비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행동을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의 전공에 스스로 만족해야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 개입, 무성의 응답 등과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은 진로결정에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에 대해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며, 자신이 속한 학과가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 및 생애에 대한 이상(central life interests)과 일치할 경우 전공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공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Braskamp와 동료들(1979)은 학과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통해 크게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과 교수관계 만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영숙(1997)은 교과과정, 학교·사회인식도, 학습평가, 전체적인 만족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하혜숙(2000)은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및 학교만족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교과만족, 교수와의 관계만족, 일반적 만족을 전공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전공만족도만을 확인하는 초기 연구에서 벗어나 각 학과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 등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각 변인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우경, 김웅준, 2012; 송윤정, 조규판, 2015; 정민주, 2014).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개인의 진로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관련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유능감을 의미한다(Taylor & Ba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후 Hackett과 Batz(1981)는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efficacy)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과정에 있어 중요한 인

지적 요인으로 강조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학문적 진로에서의 성공 및 성취행동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설명한다(Bullock-Yowell, Andrew & Buzzetta, 2011). 이후 Taylor와 Betz(1983)는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발전시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으며, 진로결정에 대한 과제 및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효능감이라고 정의 내렸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이현림과 천미숙(2003)은 ‘자신이 세운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김동심(2014)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계획 및 실행하는데 있어서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한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 가치, 욕구 등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항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보수집은 관심 있는 직업들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에 관한 것이다. 목표설정은 개인의 학업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미래계획은 개인이 결정한 진로나 전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관한 것이다. 문제해결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과 같은 진로관련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이기학, 이학주, 2000; 이명숙, 2002; 조명실, 최경숙, 2007),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관련 변인들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김봉환(1997)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즉 스스로 결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노력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포함하는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수요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필요한 장비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는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획득도 포함된다. 셋째, 목표달성에 필요한 실천적 노력이다. 앞서 언급했던 자료와 도구가 준비되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진로준비로 볼 수 없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편유희, 2015).

4. 음악전공 대학생 진로관련 연구

음악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많아진 추세를 보인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희망진로 및 진로인식(이보현, 2014; 주희선, 2013; 최진호, 정완규, 2009)에 관한 논문을 비롯해서 진로성숙도(고라희, 2016; 이보현, 2013), 진로결정수준(남수진, 2017; 이승민, 2014), 진로정체감(남지연, 2016), 진로장벽(이슬, 2016; 정환호, 2016) 등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슬(2016)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성별, 전공, 학년에 따라 살펴보고,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은주(2017)는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공만족도는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명숙(2017)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국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공 22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각 도시에 소재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본인의 생각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문항에 답하도록 안내되었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다. 총 220명의 설문자 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한 218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남학생이 33명(15.1%), 여학생이 185명(84.9%)이었고, 전공의 분포도는 서양음악 전공 182명(83.5%), 한국음악 전공이 36명(16.5%)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61명(28.0%), 2학년 46명(21.1%), 3학년 44명(20.2%), 4학년 이상 67명(30.7%)으로 나타났으며,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 출신이 101명(46.3%), 예술고등학교 출신이 117명(53.7)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변인	구분	N	%
성별	남자	33	15.1
	여자	185	84.9
전공	서양음악	182	83.5
	한국음악	36	16.5
학년	1학년	61	28.0
	2학년	46	21.1
	3학년	44	20.2
	4학년 이상	67	30.7
출신학교	일반고등학교	101	46.3
	예술고등학교	117	53.7
전체		218	100.0

2. 측정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의 측정도구는 하혜숙(2000)이 연구에서 타당화한 ‘학과만족’ 척도에 전공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졸업 후 진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문항을 선별 및 수정한 것으로, 음악교육 전공 박사과정 2인에게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의뢰한 후 수정작업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측정요인의 하위요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를 저해하는 두 개 항목(20, 21번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KMO=.9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아이겐값은 모두 1을 초과하여 모든 요인의 설명력이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 네 개의 누적 설명력은 56.682%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값을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인 모두 각각 여섯 개 항목과 네 번째 요인이 세 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는데, 요인에 해당된 항목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요인은 ‘교수와의 관계’,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인식’, 세 번째 요인은 ‘교과 및 일반’, 네 번째 요인은 ‘졸업 후 진로’로 명명하였다.

<표 2> 전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교수와의 관계	사회적 인식	교과 및 일반	졸업 후 진로
전공만족도3	.753	.130	.260	.075
전공만족도10	.734	.224	.150	.077
전공만족도4	.700	.138	.148	.023
전공만족도8	.643	.233	.224	.119
전공만족도6	.629	.226	.407	.104
전공만족도9	.622	.258	.107	.080
전공만족도18	.160	.710	.157	-.014
전공만족도16	.054	.709	.285	.079
전공만족도15	.241	.700	-.015	.150

항목	요인			
	교수와의 관계	사회적 인식	교과 및 일반	졸업 후 진로
전공만족도17	.145	.612	.452	.164
전공만족도14	.309	.574	.125	.068
전공만족도13	.361	.503	.154	-.007
전공만족도7	.277	.170	.605	.180
전공만족도2	.505	.176	.583	.096
전공만족도11	.483	.325	.582	.145
전공만족도1	.071	.183	.581	.380
전공만족도12	.440	.416	.558	.120
전공만족도5	.461	.108	.553	.079
전공만족도22	.115	.130	.110	.787
전공만족도23	.007	-.030	.165	.570
전공만족도19	.298	.502	.124	.562
아이겐값	4.202	3.366	2.743	1.592
요인 설명력(%)	20.009	16.027	13.063	7.583
누적 설명력(%)	20.009	36.036	49.099	56.682
<i>KMO</i> =.905, Bartlett's $\chi^2=2602.744(p<.00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를 Betz와 Voyten(1997)이 재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Short Form)을 이은경(2000)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은경(2000)은 요인분석을 통해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목표선택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에 대한 하위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타당도를 저해하는 한 개 항목(1번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KMO*=.91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아이겐값은 모두 1을 초과하여 모든 요인의 설명력이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 네 개의 누적 설명력은 54.288%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값 확인 결과, 첫 번째 요인에는 열한 개 항목, 두 번째 요인은 다섯

개 항목,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은 네 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요인은 ‘목표선택’, 두 번째 요인은 ‘직업정보’, 세 번째 요인은 ‘문제해결’, 네 번째 요인은 ‘미래계획’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요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1	.769	.191	.090	.16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9	.723	.219	.042	.28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7	.678	.060	.070	.3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6	.626	.234	.044	.3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8	.621	.260	.099	.32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5	.614	.210	.057	.17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4	.607	.370	.076	.0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0	.574	.110	.157	.35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2	.511	.346	.083	.3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497	.403	.140	.33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496	.324	.169	-.09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7	.254	.752	.184	.1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5	.271	.690	.101	.3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3	.197	.575	.128	.25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6	.414	.571	.200	.0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4	.325	.454	.007	.3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9	.106	.066	.861	.0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0	.037	.126	.853	.06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8	.050	.130	.790	.08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1	.278	.171	.545	.3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4	.316	.330	.134	.54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3	.068	.475	.077	.53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2	.334	.114	.141	.52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5	.224	.105	.045	.472
아이겐값	4.994	3.122	2.652	2.261
요인 설명력(%)	20.808	13.009	11.048	9.422
누적 설명력(%)	20.808	33.818	44.866	54.288

KMO=.915, Bartlett's $\chi^2=2843.867(p<.001)$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16개의 문항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 진로상담부설의 개설 등을 고려하여 2문항이 추가된 이명숙(200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5점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을 합산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앞서 분류된 요인을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 계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항 제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변인	하위요인	Cronbach's α	항목수
전공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881	6
	사회적 인식	.843	6
	교과, 일반	.878	6
	졸업 후 진로	.706	3
	전체	.923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912	11
	직업정보	.838	5
	문제해결	.863	4
	미래계획	.715	4
	전체	.927	24
진로준비행동		.912	16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등의 기술적인 통계부분을 살펴본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일반적 경향과 각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음악전공 대학생에 대한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전공만족도는 평균 3.5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54,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하위요인	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전공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1-5	3.50	0.79	-0.35	-0.02
	사회적 인식	1-5	3.54	0.74	0.00	-0.13
	교과, 일반	1-5	3.53	0.74	-0.13	-0.13
	졸업 후 진로	1-5	3.76	0.83	-0.58	-0.16
	전체	1-5	3.56	0.62	0.02	-0.2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1-5	3.81	0.68	-0.09	-0.48
	직업정보	1-5	3.44	0.81	0.00	-0.48
	문제해결	1-5	3.30	0.88	-0.21	-0.29
	미래계획	1-5	3.14	0.72	0.34	0.31
	전체	1-5	3.54	0.60	0.11	-0.33
진로준비행동		1-5	3.21	0.79	-0.03	0.13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그리고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통계를 진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481, p<.001$),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65,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29, p<.001$). 추가적으로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교수와의 관계와 교과 및 일반, 직업정보와 목표선택, 미래계획과 목표선택 사이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6>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1. 전공만족도	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81***	1	
3. 진로준비행동	.265***	.629***	1

*** $p<.001$

<표 7> 주요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1. 교수와의 관계	1							
2. 사회적 인식	.539***	1						
3. 교과, 일반	.699***	.584***	1					
4. 졸업 후 진로	.334***	.375***	.449***	1				
5. 목표선택	.399***	.413***	.386***	.447***	1			
6. 직업정보	.379***	.464***	.292***	.307***	.676***	1		
7. 문제해결	.072	.178**	.083	-.049	.318***	.338***	1	
8. 미래계획	.219**	.380***	.195**	.271***	.623***	.593***	.306***	1
9. 진로준비행동	.176**	.266***	.186**	.243***	.572***	.541***	.272***	.565***

** $p<.01$, *** $p<.001$

2. 각 변인의 집단 간 특징 분석

음악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2학년과 4학년이 비교적 낮고, 1학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공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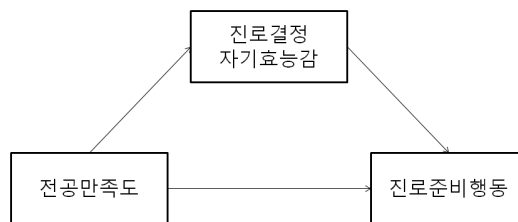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변인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M \pm SD$	$t/F (p)$	$M \pm SD$	$t/F (p)$	$M \pm SD$	$t/F (p)$
성별	남	3.51 ± 0.76	-0.514 (.608)	3.64 ± 0.57 1.072 (.285)	3.29 ± 0.78	0.643 (.521)
	여	3.57 ± 0.59			3.20 ± 0.79	
학년	1학년	3.72 ± 0.60	2.479 (.062)	3.73 ^b ± 0.51 3.44 ^a ± 0.63 3.53 ^{ab} ± 0.64 3.44 ^a ± 0.59	3.37 ± 0.75	3.206* (.024)
	2학년	3.52 ± 0.58			3.08 ± 0.72	
	3학년	3.58 ± 0.63			3.11 ± 0.93	
	4학년	3.43 ± 0.63			3.22 ± 0.75	
전공	서양음악	3.55 ± 0.62	-0.567 (.571)	3.52 ± 0.60 -0.847 (.398)	3.21 ± 0.80	0.177 (.860)
	한국음악	3.61 ± 0.64			3.19 ± 0.75	
학교 유형	일반고	3.59 ± 0.62	0.663 (.508)	3.53 ± 0.60 -0.258 (.797)	3.12 ± 0.80	-1.604 (.110)
	예술고	3.53 ± 0.62			3.29 ± 0.76	

* $p < .05$, post-hoc test: a < b

3. 변인 간 영향 관계 분석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개효과 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결과, 1단계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beta=.481, p<.001$), 2단계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beta=.265, p<.001$), 3단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52, p<.001$). 그리고 2단계와 3단계에서의 전공만족도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그 크기가 감소하였고($\beta=.265 \rightarrow -.049$),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한편 Sobel의 매개효과 검증(Sobel, 1982)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p)	R ² (adj R ²)
1	진로결정	(상수)	1.880		9.006***	64.982***	.231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0.466	.481	8.061***	(.000)	(.228)
2	진로준비	(상수)	2.011		6.673***	16.296***	.070
	행동	전공만족도	0.337	.265	4.037***	(.000)	(.066)
3		(상수)	0.401		1.405		
	진로준비	전공만족도	-0.062	-.049	-0.810	70.888***	.397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57	.652	10.805***	(.000)	(.392)
Sobel test: Z=6.456***							

*** p<.001

4. 하위요인 간 영향 관계 분석

하위요인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의 하위요인들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하위요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

독립변인의 하위요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목표선택과 직업정보에는 교수와의 관계, 사회적 인식, 졸업 후 진로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에는 사회적 인식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미래계획에는 사회적 인식과 졸업 후 진로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하위요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인의 하위요인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매개변인에서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하위요인 간 영향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목표선택 ^a	(상수)	1.659	0.235		7.070***	.000
	교수와의 관계	0.163	0.071	.190	2.300*	.022
	사회적 인식	0.178	0.068	.194	2.630**	.009
	교과, 일반	0.001	0.082	.001	0.008	.994
	졸업 후 진로	0.252	0.053	.311	4.768***	.000
직업정보 ^b	(상수)	1.195	0.285		4.192***	.000
	교수와의 관계	0.246	0.086	.241	2.855**	.005
	사회적 인식	0.403	0.082	.369	4.908***	.000
	교과, 일반	-0.179	0.099	-.164	-1.811	.072
	졸업 후 진로	0.156	0.064	.161	2.421*	.016
문제해결 ^c	(상수)	2.864	0.355		8.061***	.000
	교수와의 관계	-0.027	0.107	-.024	-0.251	.802
	사회적 인식	0.270	0.102	.226	2.640**	.009
	교과, 일반	0.037	0.123	.031	0.297	.767
	졸업 후 진로	-0.147	0.080	-.139	-1.840	.067
미래계획 ^d	(상수)	1.592	0.272		5.861***	.000
	교수와의 관계	0.058	0.082	.063	0.700	.484
	사회적 인식	0.355	0.078	.361	4.529***	.000
	교과, 일반	-0.137	0.094	-.139	-1.448	.149
	졸업 후 진로	0.154	0.061	.177	2.508*	.013
진로 준비행동 ^e	(상수)	0.492	0.296		1.661	.098
	교수와의 관계	-0.090	0.077	-.090	-1.168	.244
	사회적 인식	-0.043	0.077	-.040	-0.556	.579
	교과, 일반	0.047	0.088	.044	0.537	.592
	졸업 후 진로	0.007	0.061	.007	0.107	.915
	목표선택	0.313	0.097	.270	3.218**	.001
	직업정보	0.212	0.077	.217	2.759**	.006
	문제해결	0.033	0.052	.037	0.638	.524
	미래계획	0.306	0.078	.282	3.917***	.000

* $p<.05$, ** $p<.01$, *** $p<.001$, a. $F=22.274(p<.001)$, $R^2=.295$, $adj R^2=.282$,b. $F=19.102(p<.001)$, $R^2=.264$, $adj R^2=.250$, c. $F=2.679(p<.05)$, $R^2=.048$, $adj R^2=.030$,d. $F=11.067(p<.001)$, $R^2=.172$, $adj R^2=.157$, e. $F=19.277(p<.001)$, $R^2=.425$, $adj R^2=.403$

앞서 산출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매개변인이 여러 개일 경우에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벨 테스트를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수와의 관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는 직업정보의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1.984$, $p<.05$), 사회적 인식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는 목표선택($Z=2.033$, $p<.05$), 직업정보($Z=2.402$, $p<.05$), 미래계획($Z=2.972$, $p<.01$)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는 목표선택($Z=2.670$, $p<.01$), 미래계획($Z=2.123$, $p<.05$)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독립변인의 모든 하위요인은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므로, 상기 유의한 변인들은 모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1>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p
교수와의 관계 → 목표선택 → 진로준비행동	1.871	.061
사회적 인식 → 목표선택 → 진로준비행동	2.033*	.042
교과, 일반 → 목표선택 → 진로준비행동	0.012	.990
졸업 후 진로 → 목표선택 → 진로준비행동	2.670**	.008
교수와의 관계 → 직업정보 → 진로준비행동	1.984*	.047
사회적 인식 → 직업정보 → 진로준비행동	2.402*	.016
교과, 일반 → 직업정보 → 진로준비행동	-1.511	.131
졸업 후 진로 → 직업정보 → 진로준비행동	1.825	.068
교수와의 관계 → 문제해결 → 진로준비행동	-0.234	.815
사회적 인식 → 문제해결 → 진로준비행동	0.617	.537
교과, 일반 → 문제해결 → 진로준비행동	0.272	.786
졸업 후 진로 → 문제해결 → 진로준비행동	-0.600	.549
교수와의 관계 → 미래계획 → 진로준비행동	0.696	.486
사회적 인식 → 미래계획 → 진로준비행동	2.972**	.003
교과, 일반 → 미래계획 → 진로준비행동	-1.366	.172
졸업 후 진로 → 미래계획 → 진로준비행동	2.123*	.034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 한국음악 전공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 218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을 자기 기입식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전공, 학년,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집단을 나누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전공, 출신 고등학교 집단 간 주요변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 변인 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1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양은주(2017)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수와의 관계와 교과 및 일반, 직업정보와 목표선택, 미래계획과 목표선택 사이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명숙, 2017)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정의적 특성, 배경과 상관없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양은주(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교수와의 관계가 직업정보를 매개로, 사회적 인식이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미래계획을 매개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1학년의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시기는 고학년이 되어서 정해진다. 학생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진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로에 대해 꾸준히 구체적인 방향제시 및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결정에 대해 충분한 자기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실력을 비하하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 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미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얻는 직업에 관한 정보가 진로준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랜 기간 도제식 교육에 기초해 온 음악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그 어느 관계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의 현실적인 조언이 적극적이고 아낌없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진로교육의 형태일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밝혀졌듯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멘토링, 상담 및 음악분야에 관련된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연 (2009). 한국 대학생의 진로타협과 진로관련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 진로 태도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개인주의-집합주의성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고라희 (2016).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기영화, 정정은(2012). 음악전공자의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음악융용연구**, 5, 125-147.
- 김계현,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계원 외 (2016). 예체능계 대학 인력 공급 현황 및 인식분석. **예술교육연구**, 14(1), 1-16.
- 김동심 (2014). 특성화고교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학교소속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의 관계규명.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우경, 김웅준 (2012).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2), 65-77.
- 남수진 (2017).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지연 (2016).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과정연구. **청소년학연구**, 23(12), 187-207.
- 문인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명숙 (2017).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32, 73-87.
- 성태제 (2014).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송윤정, 조규관 (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 양은주 (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어윤경 (2010). 진로상담 : 전공-직무 일치와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변화 추이. **상담학연구**, 11(2), 721-738.
- _____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이보아라 (2012). 관현악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공 교육과정 비교-서울 소재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보현 (2014).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슬 (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승민 (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승민, 장근주 (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 **음악교육연구**, 43(2), 47-65.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주성 (2016) 경영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30(2), 1-31.
- 이현림, 천미숙(2003). 성인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 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411-444.
- 정기옥 외 (2013).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13(1), 61-68.

- 정민주 (2014).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1), 81-104.
- 정영혜 외 (2011). 대학생의 취업준비 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2, 71-88.
- 정환호 (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상담: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999.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주명진, 김정남(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주희선 (2013). 음대생들의 희망직업과 진로 자기효능감 조사. **음악교육연구**, 42(4), 187-208.
- _____ (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107-120.
-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태진미 (2009).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탐색. **영재교육연구**, 19(3), 729-758
- 편유희 (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하정, 홍지영 (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 한영숙 (1997).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259-281.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ssai, J., et al. (1977).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Program Evaluation Survey(PE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raskamp, L. A., et al.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494-498.
- Bullock-Yowell, E., et al. (2011). Explai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onality, cognition, and cultural mistrus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400-411.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56-339.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Goeun Baek, Jeey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For this purpose, 218 colleg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Western music and Korean music in Korea were surveyed for about two weeks from July 24 to August 6, 2017.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ex, major, and high school group.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was significantly high in college freshmen. Second, Pearson 's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by conduct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ron and Kenny(1986), it confirme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s a mediator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the high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ose with high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education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12일(10월 18일), 게재확정일: 10월 27일